

《主 題》

國內데이터베이스産業 現況

徐 漢 洙

(産業技術情報院 DB開發室長)

■ 차 례 ■

I. 序 論

II. 데이터베이스製作·流通 現況

III. 데이터베이스産業 市場 規模

IV. 海外 데이터베이스의 國內 進出 現況

V. 國內 데이터베이스産業의 問題點과 育成方案

5.1 問題點

5.2 育成方案

I. 序 論

데이터베이스란 情報媒體를 國內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75년 7월부터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現 産業技術情報院의 前身)가 美國化學會와 國內 서비스代行機關으로서 계약을 맺고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처음이다. 이 때는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CAC(Chemical Abstracts Condensates) 데이터베이스를 磁氣테이프 형태로 도입하여 당시 KIST의 CYBER 72-14 컴퓨터를 이용한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비스였다.

그 후 1977년까지 NTIS, COMPENDEX, INSPEC 등 해외 유명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1980년 12월부터는 미국의 Lockheed Information Center(現 DIALOG社의 前身)와 연결하여 TECHNOLINE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때는 韓國데이터통신株式會社(現 데이콤)이 설립되기 전이라 國內에 데이터통신망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국제전화와 팩스, 텔레크 등을 이용한 서비스였다.

현재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콤은 1982년에 韓國데이터通信(株)라는 社名으로 설립되어 1983년에 해외 公衆情報通信網을 개통하여 세계 33개국과 연결하여 정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84년에는 國內 公衆情報通信網(DACOM-NET)을 개통하여 國內에서도 衛星通信을 이용하여 해외 데이터뱅크와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년 11월 현재 21만명 이상의 가입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韓國PC通信의 HiTEL 서비스는 1988년 韓國經濟新聞社가 KETEL 시스템으로 신문기사 정보를 제공하다 1991년 2월에 설립된 韓國PC通信이 이를 인수받아 KORTEL이란 시스템명으로 운영하였으며 韓國通信과 HiTEL 데이터베이스 사업운영에 관한협정을 체결하여 7월부터 HiTEL로 서비스 명칭을 개칭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나섰다.

이와 같이 國內의 데이터베이스産業은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도입 또는 연결하여 서비스한데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國內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은 7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많은 商用 데이터베이스들은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內 데이터베이스産業의 역사란 겨우 2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정부의 정보서비스산업 活性化 政

策으로 말미암아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데이터베이스産業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데이터베이스製作·流通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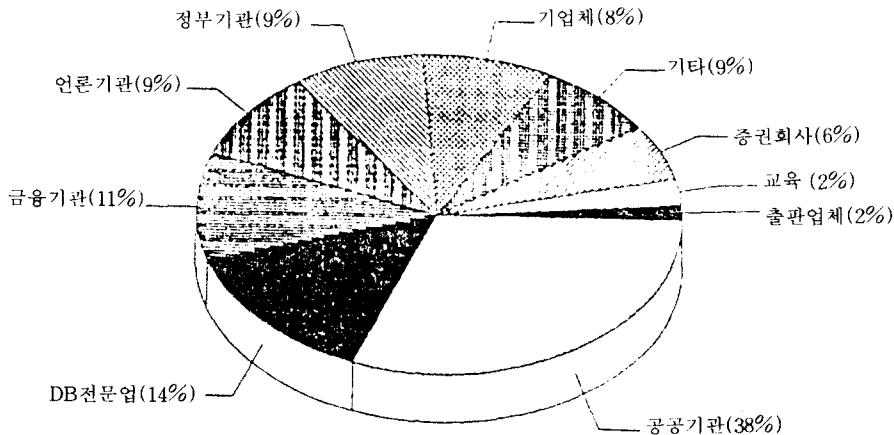
국내 데이터베이스製作 現況을 조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판매하는 기관으로 상공부 산하기관인 産業技術情報院과 체신부 산하기관인 韓國情報通信振興協會가 있다. 두 기관 모두 '91년과 '92년에 데이터베이스 總覽 또는 目錄을 발간한 바 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수록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産業技術情報院에서 조사한 「'92 데이터베이스 總覽」에 의하면 국내 제작기관은 214개 기관이며,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數는 529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3개는 자체 사용 목적인 社內 데이터베이스이고 商用 서비스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는 266개이다.

〈圖 1〉에 214개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을 業種別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韓國貿易市場情報(株)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의 비중은 14%에 불과한 반면 公共機關과 政府機關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金融機關과 證券會社도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市場이 아직 데이터베이스 자체만으로는 그 규모가 미약함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 가운데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으로 인한 負債를 안고 있는 업체가 많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 電算入力處理나 출판 등 附帶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한편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의 참여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성격상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타업종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출판업체의 참여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表1〉에 국내 제작 529개 데이터베이스의 分野別 現況을 나타내었다. 금융·증권 등 비즈니스분야가 266개로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전기·전자·컴퓨터 등 자연과학·기술분야 106개로 20%, 사전·서적 등 일반분야가 154개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사회인문과학분야는 3개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나 조사대상기관에서 누락되거나 설문에 답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으리라 생각된다.



〈圖 1〉 데이터베이스 製作者의 業種 現況(1992년)

〈表1〉 分野別 데이터베이스 現況(1992年)

분 야	DB수	분 야	DB수
일	전반(백과사전/서지 정보/서적안내)	사회인물전반	1
	신문/잡지/뉴스	교육학	
	인물/기관정보	사회학	
	행정	인구통계	
	법률	법학	
	정치	역사/정치학	
	건강/스포츠	예술(영화/음악)	
	여행/스케줄	심리학	
	오락/레저/시설안내	언어학	
	생활문화/가정생활	철학	
	지명/지도/주소	종교	
	교육(학습, 학사)	기타	
	기타	기타	
소 계	154	소 계	3
사	과학기술 전반	비즈니스산업 전반	8
	특허/상표	시장/상품	18
	의학/약학	경제(외국)	11
	생명학/생물	경제(한국)	21
	화학	신용정보	11
	물리/수학	기업재무/기업정보(외국)	4
	전기/전자/정보/컴퓨터	기업재무/기업정보(한국)	26
	기계	회계/경영	15
	건설(토목/건축)	금융증권	90
	우주/지구해양	에너지산업	2
	원자력	통신/방송	4
	환경/공해	농업/임업/어업	6
	에너지/사원	화학산업	2
	농학	노동	
	기상	건축/건설	2
	금속/소재	운송	6
	식품	판매/서비스	5
섬유/복재	유통/투동산	15	
기타	기타	20	
소 계	106	소 계	266

Ⅲ. 데이터베이스 産業 市場 規模

國內 데이터베이스 産業의 市場 規模는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圖2〉에서 보듯이 總 賣出額이 1988년 100억원을 넘은 이후로 매년 평균 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2년에는 약 85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情報通信網의 확충 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Ⅳ. 海外 데이터베이스의 國內 進出 現況

1991년 7월 1일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국제간의 단순정보처리업무와 정보검색업무의 개방을 계기로 海外 게이트웨이 사업자 및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의 國內 進出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멀티미디어 時代에 편승해 CD-ROM의 보급 및 개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만이 검색가능했던 정보들이 CD-ROM에 실려 國內에 直販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금성사 등에서 CD-ROM 드라이브를 개발, 市販을 시작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本報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최근까지의 海外 情報通信 서비스의 國內 進出現況을 〈表3〉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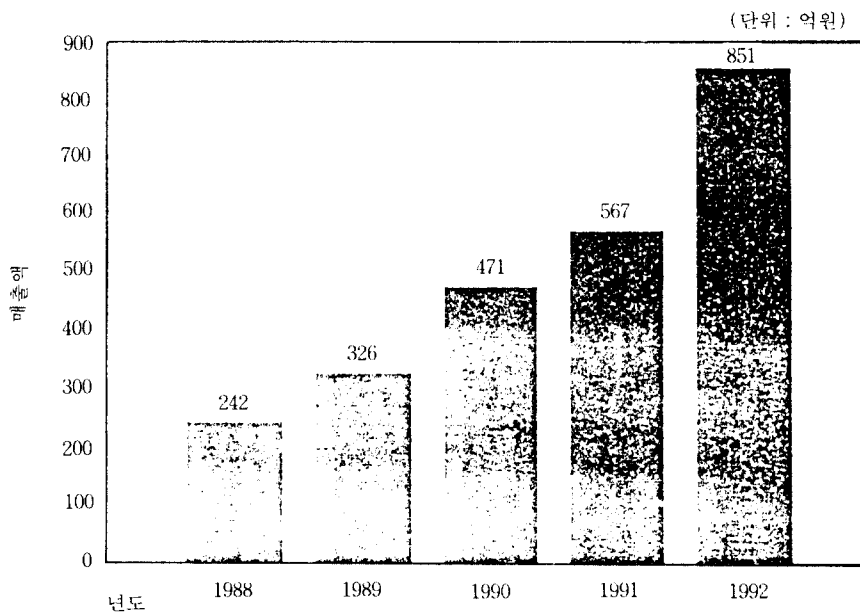
國內 市場에 진출해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海外 업체들의 國別 구성을 보면 美國이 17개 시스템으로 가장 많고, 日本 7개, 프랑스 4개, 英國 2개, 獨逸 2개, 캐나다 1개의 순으로 되어 있다. 美國은 이미 수 分野에 걸쳐 진출해 있으며, 또한 상당수 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 日本은 인접 국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JICST(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의 科學技術情報와 日本經濟新聞社의 뉴스, 經濟, 經營, 特許, 氣象 등의 分野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92년 8월말 현재 2,670곳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매출액 규모도 '92년에는 120억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海外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분야와 방대한 자료량을 무기로 國內 市場에 계속적으로 진출

〈表2〉에는 데이터베이스를 流通시키는 주요 업체와 情報內容을 나타내었다.

〈表2〉 國內 데이터베이스 流通機關 現況

機 關 名	온라인서비스명	情 報 內 容
産業技術情報院	KINITI-IR	國內外 産業·科學技術情報
(주)데이콤	千里眼Ⅱ	一般分野, 經濟·産業뉴스, 産業·技術情報 등 生活情報와 專門情報
韓國PC通信(주)	HiTEL	文化/生活, 經濟情報, 家計/投資情報 등
韓國信用評價(株)	KIS-LINE	企業情報
韓國信用情報(株)	NICE-TIPS	企業情報
金星情報通信(株)	GINS	入札情報
포스데이타(주)	POS-Serve	文化, 定期刊行物, 碩博士 論文 등
三星데이타시스템(株)	S-NET	科學技術情報, 貿易情報 등
(株)大信電算센터	DIAMOND	證券情報 등
中央日報社	JOINS	뉴스, 人物情報 등
每日經濟新聞社	MEET	뉴스
韓國電子通信研究所	ETLARS	電氣, 電子, 通信情報
시스템工學研究所	KRISTAL	科學技術分野
韓國貿易協會	KOTIS	貿易·經濟統計
韓國電力公社	KIS	電力情報 등
韓國證券情報開發院	KISS	證券情報



註) '92년도 수치는 예측 자료임

資料) 産業研究院, “政策協議資料”, 1992. 8. 25

〈圖2〉 國內 데이터베이스 産業의 賣出額 現況

<表3> 海外 데이터베이스의 國內 進出 現況

제 공 시 스템 명	서 비 스 기 관 명(國名)	國內 提 供 機 關
BLOOMBERG	Bloomberg Financial Markets(미)	콤텍시스템
BRS	Bibliographic Retrieval Service(미)	KINITI, 삼테크
COM-NET	COMLINE Int. Corp(일)	삼테크
Compuserve	Compuserve Info. Corp(미)	KINITI, 포스데이타
DIALOG	Dialog Info. Service, Inc. (미)	KINITI, 데이콤
DIMDI	DIMDI(독)	KINITI
EMIS	EMIS(미)	대우
GARTNET ON-LINE	Gartner Group(미)	가트너 韓國支社
G. CAM Serveur	G. CAM Serveur(프)	KINITI
GSI-ECO	GSI-ECO(프)	KINITI
Info-Globe	The Golbe & Mail(캐)	中央日報社
JOIS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일)	KINITI, 데이콤
EL-NET	(주)엘렉트릭 라이브러리(일)	情報産業標準院
Knight-Ridder	Knight-Ridder의 Business Info Service(미)	韓國PC通信
LEXIS Service	Mead Data Central, Inc. (미)	데이콤
NEWSNET	NewsNet, Inc. (미)	삼테크
NEEDS-IR	Nihon Keizai Shimbun(일)	毎日經濟新聞社
NEXIS Service	Mead Data Central, Inc.(미)	데이콤
NOTICE	ISC(미)	데이콤
NIFTY-SERVE	나프티(주) (일)	포스데이타
OCEAAN ROUTE	(미)	테크마린
ORBIT Search Service	Maxwell Online, Inc.(미)	KINITI, 삼테크
PATOLIS	日本特許情報機構(JAPIO) (일)	KINITI
QUESTEL	Telesystems (프)	KINITI
Reuter Monitor	Reuters Limited (영)	聯合通信社
STN-International	CAS, Fiz-Marlsruhe, JICST(미독일)	KINITI
Telerate Market Information Net	Telerate Systems, Inc. (미)	聯合通信, 中央日報
Teletel	France Telecom (프)	동아부익(주)
TEXTLINE	Reuter Holdings PLC (영)	韓國經濟新聞社
WTC Network	World Trade Center (미)	韓國貿易協會
Easy-Net	Telebase Systems (미)	포스데이타

할 것으로 보인다. 國內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이 技術能力, 營業力 등이 현저하게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現地 國內 情報에서는 한글·漢字處理, 情報內容의 地域性 등에 강점이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보지만, 海外의 經濟·經營·産業情報의 경

우 데이터가 대부분 數值情報이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어 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構築 強化가 시급하다. 또한 科學技術 分野도 國內의 情報 生産량이 많지 않고 流通·蒐集體系도 미흡하여 이 분야 역시 強化해야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V. 國內 데이터베이스産業의 問題點과 育成方案

5.1 問題點

데이터베이스 産業은 고도의 技術집약 産業으로 技術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産業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情報通信 등의 情報産業은 他産業의 情報化를 촉진시켜 생산의 高附加 價値化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일반 국민의 情報 이용을 活性化하며, 地域間 情報資源 隔差와 情報 流通의 隔差를 줄여 地域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國內 데이터베이스 産業은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 産業에 비하면 극히 적은 규모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 업체와의 경쟁력도 미약하다. 다음에 國內 데이터베이스 産業의 問題點들을 살펴보았다.

(1) 需要 基盤의 脆弱

社會 전반적인 弘報가 不足하여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계층의 사람만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율이 일정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장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키보드 사용은 물론 檢索技術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의 일반 사용자 시장 형성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2) 國內 제작 데이터베이스의 不足과 海外 依存度 深化

國內에서 製作되었거나 保育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절대적인 不足을 들 수 있다.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保有하고 있는 政府機關이나, 公共機關, 大企業들의 데이터베이스 公開 미흡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 부진한 형편이다. 또한 초기에 주로 海外 데이터베이스의 導入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國內 데이터베이스 構築 노력이 있지만 아직도 海外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情報通信 시장의 開放으로 인하여 海外 依存도가 심화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다.

(3) 情報 價値에 대한 認識 不足

情報 이용의 社會的 慣行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情報 價値에 대한 認識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것은 弘報 不足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機關들의 소극적 자세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4) 데이터베이스 관련 技術의 不足

소프트웨어 産業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情報·通信技術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情報通信 서비스의 活性化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情報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標準化와 데이터베이스의 製作, 利用, 流通分野의 基礎技術이 不足한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 構築·運用技術 뿐만 아니라 情報蒐集, 加工, 蓄積, 流通서비스등 諸 技術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5) 政策 擔當 및 專門 推進 機關의 役割 脆弱

데이터베이스 製作 및 流通에 관한 계획이 각 部處 別로, 機關別로 分散되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産業 政策이 결여되고 있다. 현재 商工部, 遞信部, 科學技術處 등에서 각각 독자적인 政策案들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

(6) 投資回收의 어려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産業이 그렇듯이 데이터베이스 産業은 그 성격상 投資回收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뿐만 아니라 현재 國內에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需要 기반이 脆弱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國內 製作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의 것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情報의 價値를 인정하지 않는 國內 환경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國內 제작 데이터베이스가 아직은 情報의 양이나 품질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7) 金融·稅制·行政的 支援 未備

데이터베이스 構築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영세 중소기업인데다가, 데이터베이스 産業의 특징인 투자에 대한 수익의 회임 기간이 길어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데도 데이터베이스 産業이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金融支援 및 稅制 혜택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8) 관련 法規의 미흡

아직도 政府 部處 및 각 公共機關의 情報 자료가 公開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익적인 상격을 띤 情報은 국가 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 한 公開되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情報公開法과 같은 제반 法規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데이터베이스 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著作權法도 制定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2 育成方案

(1) 金融·稅制 支援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産業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金融 및 稅制의 지원이다. 현재 데이터베이스産業은 서비스업 분류에 속해있기 때문에 事業資金支援 및 稅金惠澤을 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製作業의 경우 商品價値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길게는 5년이 지나야만 한다기나 큰 初期投資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막대한 資金力이 요구되는 업종이다.

최근 政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데이터베이스産業을 製造業 차원에서 지원하는 法的 근거를 마련중에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製造業 차원이 아니라 未來 情報社會를 대비한다는 측면과 國家 基幹産業의 측면에서 단순한 製造業 차원 이상의 支援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2) 技術 開發 및 標準化

데이터베이스産業에는 데이터베이스의 製作과 運營·流通에 관련된 高度의 技術이 요구된다. 즉, 컴퓨터, 記憶媒體, DBMS, 情報通信등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尖端技術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産業의 지원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技術 및 産業에 대해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최근 모든 産業에서 標準化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情報産業에서는 이 문제가 國際적으로 매우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國際

化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産業의 성패에 産業標準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標準化 대책으로 작년에 공업진흥청 산하에 情報産業 標準院을 설립하여 標準化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標準은 크게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標準과 데이터베이스의 管理·流通과 관계된 소프트웨어 및 流通 프로토콜(protocol) 관련 標準이 있는데, 前者는 ISO/TC46에서, 後者は ISO/TC37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國內外的인 標準化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北韓만이 관계된 한글과, 동양권만 관계되어 있는 漢字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標準化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專門人力 確保

데이터베이스産業에는 情報通信 관련 人力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設計 및 構築·運營에 관한 人力과 이들 전체 조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人力도 특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國內에서는 情報通信 쪽의 專門家 육성에만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균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 專門家を 양성하고 수직으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國內 大學에서 圖書館學科를 文獻情報學科로 이름을 바꾸고 학과내용도 바꾸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최근 産業技術情報院을 비롯한 여러 機關에서 산업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情報檢索 또는 社内 情報化에 대한 教育을 활성화 하고 있는 것도 專門人力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측면 확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4) 體系的 協調體制 마련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産業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重複開發 및 公共機關의 상성적 開發로 비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꽤 발견되고 있다. 이것을 국내 데이터베이스産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1년부터 시작된 産業技術情報院의 데이터베이스 총괄과 情報通信

振興協會의 데이터베이스 目錄 發刊은 또다른 중폭을 유발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또 公共機關들은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상징적인 데이터베이스 開發보다는 보다 실용성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서 機關間의 경쟁보다는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機關이 連繫體制를 잘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情報資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國家的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각 部處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上位의 기구를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情報資源의 發掘

자료의 무조건적인 데이터베이스化는 오히려 人力과 豫算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중요한 資料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死藏시키는 것 역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資料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로 政府機關에서 보유하고 있는 資料나 발간하고 있는 소위 灰色文獻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美國의 프라이버시 保護法과 情報公開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中小企業이나 일반 개인에게 필요하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化 되지 않고 있는 資料가 어떤 것이 있는지 當局과 業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情報 需要 創出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産業은 지금까지 供給者 주도형 市場構圖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 이를 뛰어넘는 발전을 하려면 消費者 주도형 市場構圖로 나가야만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200만대 이상의 PC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함에 따라 需要者가 企業이나 研究所만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엔드유저(end user) 市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消費者들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유통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일과 효과적인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利用 便宜性, 料金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 한 수

- 1949년 7월 14일생
- 1976년 : 한양대학교 고분자공학과(공학사)
- 1978년 : 한양대학원 고분자공학과(공학석사)
- 1990년 : 한양대학원 공업화학과(공학박사)
- 1978년~1982년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기술원
- 1982년~1991년 : 산업연구원 부전문위원
- 1991년~현재 : 산업기술정보원 DB개발실장
- 1991년~현재 :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부회장